

플라이강원의 회생신청 및 운항중단에 따른 소비자 보호조치 철저 촉구

- 갑작스러운 운항중단(양양-제주, 5.20일부터)에 따른 소비자 피해 대응 및 보상에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할 것 지시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최근 경영난을 겪어왔던 플라이강원이 5.18일(목)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신청 예고와 함께 운항중단을 발표한 사안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및 보상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 했다.
- 현재 플라이강원이 운항하는 항공편의 예약 현황은 5월 말까지 양양-제주 노선에 약 7천 명, 10월 말까지는 국제선까지 포함하여 약 3.8만 명에 달한다.
- 항공사측은 운항 중단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, 예약 승객들에게 제대로된 정확한 환불 및 보상금액 지급에 대한 일정 제시 등 보상방안 마련도 없이 갑작스럽게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.
- 국토교통부는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플라이강원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끝까지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.
- 또한, 플라이강원의 운항 중단으로 양양공항을 이용하던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편 운항이 조속히 재개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영혜 (044-201-4219)
	항공산업과	담당자	사무관	이종선 (044-201-4231)